

인문대학 철학전공 졸업논문

# 한국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반대 담론 연구

:<거룩한방파제>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전공

허윤진

2025년 11월 11일

##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갈등

1. 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에 대하여
2. 평화로운 퀴어문화축제, 평화롭지 못한 퀴어문화축제

### III. 거룩한 방파제, 무엇이 문제인가?

### IV. 거룩한 방파제 주장이 가진 오류에 대하여

1. 동성애퀴어문화축제가 국민들에게 수치심과 혐오를 유발하는가?
2. 퀴어문화축제가 호기심 많은 청소년/청년들을 성소수자로 만들 수 있는가?
3. 성소수자들이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 옳지 못한가?
4.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 사용조례에 역행하는가?

### V. 결론

## 요약문

본 글은 대한민국 내 각지에서 개최되는 “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 중 일부 보수 개신교도와 성소수자 사이의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는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에 “거룩한 방파제”가 제기하는 비판의 적절함을 검토하고자 한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 공간에서 가시화하는 문화적 행위의 일종으로,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가 공론장에 참여할 권리를 실천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매년 찬성·반대의 갈등 속에 개최되어 왔으며, 특히 거룩한 방파제의 조직적인 반대 활동에 시달려왔다. 이에 본 글은 보수적 개신교를 표방하는 “거룩한 방파제” 단체 측이 제기하는 주요 주장들을 분석하고, 주장의 근거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출처와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거룩한 방파제의 비판은 표면적으로 공익과 도덕을 내세우고 있지만, 편향된 근거들에 기초하여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들을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기 위해 억지스러운 근거를 토대로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일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건전한 공론장 형성을 위해 거룩한 방파제 측의 자기성찰과 주장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I. 들어가는 말

현대 사회에서 담론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성혐오, 장애인 차별, 노동조합”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주제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일이 가능해지며 자연스레 시간적·공간적 제약은 사라지고 익명성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SNS 사용자들의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와 달리 윤리 의식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이 윤리적 공백의 영향으로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논쟁들은 혐오와 비난, 비판과 주장이 난무하는 각축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건전한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 각 주장을 구성하는 논증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퀴어문화축제와 관련된 갈등은 감정적 호소와 논리적 주장이 첨예하게 뒤섞여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SNS상 마찰이나 언쟁을 넘어 오프라인 대면 시 특정 단체가 물리적인 폭력 및 직접적 혐오에 노출되는 수준의 심각성을 가진다. 이러한 간두지세(竿頭之勢)<sup>1)</sup>의 상황에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이하 거룩한방파제)”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그들의 주장이 보편적 공감대를 얻는 여론으로 자리 잡기 위해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듯 영원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는 없으나, 각 주장의 평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수준과 논리적 건전성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은 퀴어문화축제의 주요 반대 단체 중 거룩한 방파제가 제시하는 핵심 주장들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주장과 근거 사이의 개연성 확보 수준과 근거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공공 담론에서 요구되는 논리적 책임의 중요성을 고찰할 것이다.

## II. 한국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갈등

### 1. 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글 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내용은 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 등을 주제로 하기에 글 이해를 위해서는 핵심 개념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먼저, 한국의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존재와 그들의 문화를 공적 공간에서 가시화하는 행위이다. 이때 “가시화”라 함은 단순히 눈에 보이게 한다는 물리적 범위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되고 주변화된 존재들이 공론장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적 행위의 일부인 동시에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문화적 실천이다. 따라서 퀴어문화축제가 시민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 광장에서 개최되는 것은 성소수자들이 공적 영역에서 자신들의 정당한 자리를 요구한다는 의미를 일부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2장에서는 퀴어문화축제를 향유하는 당사자인 성소수자와 그들의 문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성소수자는 전형적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무성애자, 간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는 정체성과 지향성 개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

1) 대막대기 끝에 선 형세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형세를 이르는 말

#### 1) 성소수자, LGBTAIQ+, 이반(異般), 퀴어(Queer)란?

성소수자, LGBTAIQ+, 이반(異般), 퀴어(queer)는 각기 다른 의미의 단어이나, 모두 성적 지향 및 정체성에 소수자성을 가진 “sexual minority”를 지칭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기에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기 쉽고, 실제로 혼용되는 일이 잦은 편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글의 분석과 비판으로 들어가기 전 해당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퀴어(queer)는 ‘기묘한, 이상한’ 등의 의미로 본래 사회적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이들을 모욕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이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이 점차 스스로를 긍정하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퀴어”라 칭하기 시작함에 따라 영어 문화권에서는 성소수자, LGBT 등을 포괄하고 통칭하는 긍정적 의미로 전위되었다.<sup>2)</sup> LGBT는 성소수자 중 가장 잘 알려져있는 레즈비언(Lesbian, 여성 동성애자), 게이(Gay, 남성 동성애자), 바이섹슈얼(Bisexual, 양성애자), 트랜스젠더(Transgender, 성전환자)의 첫음절들을 대문자로 표기한 단어이나, 지칭 시 LGBT에 속하지 않는 성소수자들이 배제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추후 LGBT에 배제되었던 에이섹슈얼(Asexual, 무성애자), 인터섹스(Intersex, 간성), 퀘스처너(Questioner)<sup>3)</sup>와 이외의 모든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플러스(+)를 덧붙여 LGBTAIQ+로 표기하게 되었다. 이반(異般)은 한국의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단어로, 일부 남성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은 사회에서 일반(一般)으로 여겨지는 이성애자들과 달리 2류라는 의미에서 이반(二般)이라 칭하기 시작하며 생겨난 단어이다. 추후 어두의 ‘이’에 대한 의미가 이성애자와의 구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며 이반에 ‘다를 이(異)’의 의미가 추가되었고, 현재는 두 의미 모두 통용되고 있다.<sup>4)</sup> 이처럼 “sexual minority”를 지칭할 수 있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나, 한국어에서 이들을 가장 명확히 지칭할 수 있는 대체어는 ‘성소수자’이다. 본래 “sexual minority”의 의미는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의 일부로, 모든 성 지향성(sexual orientation)과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에서 소수자성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때 “소수”라 함은 수적 열세가 아닌 권력에 대비된 약자를 의미하기에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지닌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된다.<sup>5)</sup> 따라서, 본 글에서는 본문의 명확하고 간편한 이해를 위해 “sexual minority”를 ‘성소수자’로 통일하여 표기할 것이다.

#### (1) 섹슈얼 아이덴티티(sexual Identity, 성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그중에서도 성 정체성은 흔히 “sex”와 “gender”로 표기되는데 이 둘은 일상적인 장면에서 같은 의미인 것처럼 통용되는 등 오용이 잦다.

##### ① 섹스(sex, 생물학적 성)

섹스(sex)는 ‘성(性)·성별; 성적 요소성의·성(性)의·성적인’ 등의 의미로 문장에 주어진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나, 현재 단락에서의 섹스(sex)는 젠더(gender)와 같은 맥락에서 제

2) 이성애자를 제외한 모든 성적 소수자를 이르는 말. 본래의 뜻은 ‘이상한’, ‘비정상적’이라는 의미이나 지금은 성적 소수자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3) 성소수자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으나, 자신의 성정체성, 지향성을 정체화하지 않아 아직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성소수자 지칭 용어 중 하나이다. 다만 명확한 대체어가 존재하지 않아 보통 발음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대한민국의 경우 동성애자들이 ‘일반(一般)’이라 구분되는 이성애자들과 달리 스스로를 2류라고 칭하며 이반(二般)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점차 이성애자들과 다르다는 의미를 내포한 뜻의 이반(異般)으로 의미가 확대되어 현재는 성소수자 모두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손민지, 덕성여대신문, <http://www.dspress.org>

5) Conron, K.J., Goldberg, S.K., Adult LGBT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2020

시되었다. 따라서 “Identity”, 정체성의 의미를 함축한 “성별; 성적 요소성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글에서의 섹스(sex)도 동일하게 '생물학적 성'의 의미로 활용될 것이다. 생물학적 성은 태어날 때 의학적으로 분류된 생물학적 특성으로, 보유한 성염색체(XX/XY)와 신체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 성기에 따라 결정되며 여성(female), 남성(male), 인터섹스(intersex, 간성)로 구분된다.

## ② 젠더(gender, 사회적 성)

젠더(gender)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여성, 남성, 혹은 그 외의 성별에 대한 개인 내적인 감각과 표현을 의미한다. 자연히 생물학적 성과 달리 유동적 변화가 가능하며, 다양한 범주를 가지고 있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는 성 정체성을 가진 이는 시스젠더(cisgender, 성별 일치자), 일치하지 않는 이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 성전환자)라고 한다.<sup>6)</sup>

## (2) 섹슈얼 오리엔테이션(sexual Orientation, 성 지향성)

성 지향성은 개인이 낭만적, 감정적, 성적 끌림을 느끼는 일에 대한 경향을 의미한다.

### ① 로맨틱(romantic, 연정)

로맨틱(romantic)은 개인이 연정적 끌림을 느끼는 대상에 대한 지향성으로, 상대에게 가지는 감정 중 “연정, 감정적 유대, 소유욕, 애착” 등의 정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로맨틱은 이를 느끼는 자로 하여금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거나, 소유하고 싶거나, 애착을 느끼는 일을 경험하게 한다. 이는 헤테로 로맨틱(hetero romantic, 이성애에 대한 연정적 끌림), 호모 로맨틱(homo romantic, 동성애에 대한 연정적 끌림), 바이 로맨틱(bi romantic, 두 개 이상의 성에 대한 연정적 끌림), 팬 로맨틱(pan romantic, 모든 성별에 대한 연정적 끌림) 등 다양한 범주로 분류된다. 이때 “romantic”은 연정적 끌림만을 의미하기에 “romantic”이 “sexual”과 직결되는 것이라 혼동해서는 안된다.

### ② 섹슈얼(sexual, 성적 끌림)

섹슈얼(sexual)은 개인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에 대한 지향성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에게 가지는 감정 중 “색욕, 성욕, 성적인 관계에 대한 소망” 등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섹슈얼은 이를 느끼는 자로 하여금 상대방과 ‘성적 행위를 하고싶다, 유사 성 행위, 성적인 의미를 함유한 기류를 공유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일을 경험하게 한다. 섹슈얼도 로맨틱과 동일하게 헤테로 섹슈얼(hetero Sexual, 이성애에 대한 성적 끌림), 호모 섹슈얼(homo Sexual, 동성애에 대한 성적 끌림), 바이 섹슈얼(bi Sexual, 두 개 이상의 성에 대한 성적 끌림), 팬 섹슈얼(pan Sexual, 모든 성별에 대한 성적 끌림) 등 다양한 범주로 분류된다.

### ③ 에이로맨틱(A-romantic, 무연정), 에이섹슈얼(A-sexual, 무성애자)

에이로맨틱은 타인에게 낭만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지향성을 가진 사람으로, “연정, 타인과의 독점적 소유관계 욕구”와 같은 감정을 특정한 상대에게 느끼는 일이 없거나 희박함을 의미한다. 에이섹슈얼은 타인에게 낭만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지향성을 가진 사람으로, “색욕, 성욕, 성적인 관계에 대한 소망”과 같은 상태를 특정한 상대에게 느끼는 일이 없거나 희박함을

6) Graham et al, 2011. “The health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Building a foundation for better understanding”을 참조

의미한다. 이 두 지향성은 범주처럼 완전히 분리되어 유성·무성으로 나뉘는 개념이 아니기에 스펙트럼과 같은 연속선상 내에서 설명된다. 같은 에이로맨틱 일지라도 타인과의 독점적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과 연애적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에이섹슈얼에서도 동일하다. 같은 에이섹슈얼 일지라도 ‘성관계를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 ‘본인의 선호에 따라 성관계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모두 존재한다.

## 2) 퀴어문화축제

퀴어문화축제는 복합적인 문화·사회적 요소를 포함하는 축제로, 이 축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퀴어문화축제가 가진 역사와 상징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초의 퀴어문화축제는 1969년 6월 28일, 미국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 지역 ‘스톤월 인’이라는 게이바에서 일어났던 항쟁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sup>7)</sup> 1900년대 후반에 접어드는 시기였던 당시 미국은 성소수자를 치료의 대상이자, 명시적인 핍박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기에 동성애자 술집들은 경찰의 급습, 체포 등 차별적 행정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잦았다. 1969년 6월 28일, 스톤월 인을 이용하던 성소수자들에게도 동일한 차별적 행정과 급습이 이루어졌으나, 이날의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공권력에 의한 차별과 경찰의 상습적인 폭력을 당해 왔던 것에 저항하는 의미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경찰에 맞섰고, 이 일이 ‘스톤월 항쟁’이다. 이후 1년이 지난 1970년 6월, 스톤월 항쟁 1주년을 기념하며 모인 사람들은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성소수자 해방의 날(Gay Liberation Day) 행진을 하였고, 이것이 최초의 성소수자 프라이드 행진, 퀴어문화축제이다. 이후 미국 외의 다양한 국가에서도 스톤월 항쟁의 뜻을 이어 매해 6월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하며 세계 각국은 고유한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를 향유하게 되었다.

## 2. 평화로운 퀴어문화축제, 평화롭지 못한 퀴어문화축제

### 1) 해외의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해외 퀴어문화축제는 1970년 성소수자 해방의 날(Gay Liberation Day) 이후 일본 도쿄 프라이드<sup>8)</sup>, 대만 타이베이 퀴어퍼레이드<sup>9)</sup>, 독일 베를린 퀴어축제<sup>10)</sup>, 미국 샌프란시스코 퍼레이드<sup>11)</sup>를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해외

7) 1969년 6월 28일 뉴욕에서 경찰들이 스톤월 내의 성소수자들을 끌어내 폭력을 행사한 것에 사람들은 공권력 남용과 인권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고, 1년 뒤인 1970년 6월 28일, 이 사건을 기념하며 개최된 Gay Liberation Day가 최초의 퀴어퍼레이드, 퀴어문화축제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뉴스, <https://amnesty.or.kr/29448/news/%EC%8A%A4%ED%86%A4%EC%9B%94-%ED%95%AD%EC%9F%81-50%EB%85%84-%EC%9E%90%EA%B8%8D%EC%8B%AC%EA%B3%BC-%EC%8B%9C%EC%9C%84-%EA%B7%B8%EB%A6%AC%EA%B3%A0-%ED%8F%89%EB%93%B1%EC%9D%84-%ED%96%A5%ED%95%9C/>

8) 2025년 6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 프라이드’ 참가자들은 행사의 진행이 한국과 달리 성소수자에 반대하거나 차별적인 언행을 뱉는 집단적 움직임을 본 적 없음을 말했다. 유수연, 뉴스1,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812369>

9) 2023년 대만 타이베이 퀴어퍼레이드 현장에 있던 타이베이 경찰은 한국의 상황이 대만의 10년 전 상황과 비슷한 것 같다, 대만은 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경찰도 이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최유진,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311011502001>

10) 2024년 베를린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날 베를린 경찰은 1200명을 배치했지만, 참가자들에게서 행복하고 친절할 얼굴을 보았다고 말하며 며 전반적으로 큰 사고 없이 행사가 끝났다고 밝혔다. 장예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51005.html>

11) 2021년 기준 51주년을 기록한 SF Pride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퀴어문화축제로, 샌프란시스코

의 퀴어문화축제들은 대부분 반대 집단과의 마찰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되고, 명시적인 갈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개입도 요하지 않는다.<sup>12)</sup>

## 2) 한국의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한국의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도 처음으로 개최된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를 필두로 현재는 인천, 광주, 춘천, 대구, 제주 등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으나, 본 글에서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거룩한방파제 간의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는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서울퀴어문화축제(Seoul Queer Culture Festival: SQCF)는 200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개최되고 있는 복합·공개·문화 행사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자원활동가들의 주도하에 개최된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어우러져 즐기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는 행사의 비전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자긍심을 증진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중 거룩한 방파제와 자주 마찰을 빚는 행사는 퀴어문화축제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서울퀴어퍼레이드(Seoul Queer Parade: SQP)이다.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의 가시화, 문화 향유,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도심 야외를 주로 하는 공개·문화 행사이다.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열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Pride Parade, 자긍심 행진)과 궤를 같이하며, 부스, 무대, 퍼레이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3)</sup> 다만, 해외의 퀴어문화축제와 달리 한국의 퀴어문화축제에는 문화 향유, 경험 공유와 같은 경험보다 단체 간 갈등이 두드러진다. 이때의 갈등은 단체 간 이념 차이로 인한 표면적 의견의 갈등 수준을 넘어 물리적인 폭력, 추행 등이 행사되기에 공권력 및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의 심각성을 보인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sup>14)</sup>,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sup>15)</sup>, 제7회 대구 퀴어문화축제<sup>16)</sup>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sup>17)</sup>가 있다. 주로 한국의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갈등을 빚는 집단으로는 ‘신촌동성애반

---

코 시가 적극 지지하는 행사인 만큼 행사 기간 시 도심 곳곳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장식이 등장한다. 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여러 유력 기업이 스폰서로 이름을 올린다. 하성태, Go발뉴스, <https://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15>

- 12) 대만 퀴어퍼레이드의 경우 행렬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이가 없기에 행진이 진행되는 거리에 참가자들을 가두는 펜스와 차벽 없이 자원봉사자들과 적은 수의 경찰만으로도 교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나수진, 뉴스앤조이,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68>
- 13)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누리집 > 소개 > 퀴어문화축제, <https://www.sqcf.org/sqcf>
- 14) 2018년 09월 08일 개최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폭력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2020년 06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2020년 2월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B(45)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연주, 인천투데이,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501>
- 15) 2018년 09월 29일 개최된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의 경우, 본래 4시 30분경 거리행진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반대 단체들이 입구를 막으며 1시간 가까이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이 반대단체를 애워싼 사이 축제 참가자들은 입구를 빠져나가 거리로 나아갔으나, 이를 다시 저지하기 위해 반대 측이 아스팔트 바닥에 드러누워 행진을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변지철,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929028151056?input=1195m>
- 16) 2015년 07월 05일 개최된 제 7회 대구 퀴어문화축제에 기독교 단체의 모 장로는 자신의 몸에 인분을 바르고 행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몸을 던졌다. 이 장로는 인분이 묻어 있는 손으로 현수막을 잡아채 현수막 곳곳에 인분을 묻힌 후 “매국노”라고 고함을 치며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고 약 10분간의 소동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구권효, 뉴스앤조이,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68>
- 17) 2025년 06월 14일 개최된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행진 시 일부 구간에서 ‘동성애는 죄악’과 같이 차별·혐오 표현을 내건 보수 개신교 신자들과 자신의 몸에 오물을 묻힌 채 ‘반대’ 구호를 외치는

대청년연대<sup>18)</sup>,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sup>19)</sup>,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sup>20)</sup>, 일사각오 구국 목회자 연합<sup>21)</sup> 등 다양한 단체들이 있지만, 본 글에서는 이 중 가장 적극적인 반대의 행보를 보이며 갈등을 빚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 Ⅲ. 거룩한 방파제, 무엇이 문제인가?

거룩한 방파제 홈페이지 ‘단체 소개’<sup>22)</sup> 글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주장에 기반하여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는 동성애자들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개인의 성적취향에 따라 은밀하게 사랑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1)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광장에서 동성애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선정적인 음란 공연과 음란물 전시로 국민들에게 수치심과 혐오를 유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위험한 생활양식 때문에 이 사회에 에이즈가 확산되고,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교육이 황폐화되고, 군대와 사회가 문란해집니다. (2) 특히,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동성애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이 동성애 축제로 인하여 동성애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퀴어축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3) 동성애자들과 그 지지 세력들은 퀴어축제를 통해 동성결혼합법화를 이끌어낸 20여개 국가들의 지지와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압박함으로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건전한 국민들의 표

---

혐오세력이 존재하였다. 김효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202803.html>

- 18) 2014년 06월 07일 예정되었던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보수 개신교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등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반대 의견으로 도배하고, 관계 부처에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돌렸다. 나수진, 뉴스앤조이,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41>

- 19) 2023년 06월 17일 개최된 대구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희망우파실천국민연합, 대한애국청년단, 파주태극기연합 등이 모인 '기독교가치수호연합'과 '대구대현동국민권침해법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퀴어문화축제 현장 근처에서 '대구퀴어슬람 규탄 6.17 국민대회 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은 퀴어와 이슬람사원 건설은 친일파 매국노처럼 친이슬람 탈레반 원리주의, 사대주의 행위이니 동성간 성행위를 미화시키는 젠더 이데올로기 강요 가스라이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영화, 정준민, 평화뉴스,

<https://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6>

- 20) 2016년 제17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서가 제출된 것에 대해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 외 68개 시민단체는 2016년 03월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광장운영위원회에 퀴어 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성화,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6/03/24/2016032400136.html>

- 21) 2022년 07월 16일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이 승인된 것에 대해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등 기독교단체들은 강력한 반발을 보이며 2022년 06월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축제에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준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20621163700013?input=1196m>

- 22)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누리집, 단체소개, <https://loveisplus.co.kr/31>

현의 자유까지 말살하고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합니다.

또한 서울광장이 해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마당으로 사용되는 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서울광장 사용조례 제1조는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집회의 진행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란성이 상존해왔던 동성애자들의 선정적인 퍼포먼스는 결코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에 역행하는 것이며, 공익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인격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는 탈동성애만이 참된 인권운동임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탈동성애 운동과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동성애 문화에서 탈출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생명윤리를 배우고, 함께 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IV. 거룩한 방파제의 주장이 가지는 오류

제시된 거룩한 방파제 단체 소개 글을 중심으로 퀴어문화축제 반대 사유를 요약하면 이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 기반하여 반대 행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광장에서 음란한 동성애 퀴어축제가 개최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수치심과 혐오를 유발한다. 동성애는 부적절한 것인데,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면 호기심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이 퀴어축제와 동성혼 합법화를 이루어낸 국가들의 여론으로 국회를 압박해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해야만 하는데, 퀴어문화축제는 음란하다. 따라서 퀴어문화축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거룩한 방파제의 주장에 대해 선불리 윤리적, 혹은 신학적 측면에서 윤리적인 올바른 수준의 신학적 해석의 정합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공공 담론에서 최소한의 논리적 주장의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글은 거룩한 방파제 주장, 명제들이 논리적 타당성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결함들의 논리적 오류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 1. 동성애퀴어문화축제가 국민들에게 수치심과 혐오를 유발하는가?

가장 먼저 짚어야 하는 부분은 이들의 주장과 달리, 모든 성소수자가 동성애자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 성소수자는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의 일부로, 모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sexual orientation, 성 지향성)과 섹슈얼 아이덴티티(sexual Identity, 성 정체성)에서 소수자성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성소수자” 내에 레즈비언, 게이와 같은 동성애자를 비롯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에이섹슈얼 등이 이미 포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동성애자가 성소수자인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성소수자가 동성애자인 것은 불가능하다.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도 마찬가지이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양성애자, 범성애자, 무성애자, 성전환자, 이성애자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기에 특정 성 지향성이 참여하는 퀴어축제라 의미를 축약할 수 없다. 의미가 잘못 축약된 문장은 “거룩한 방파제가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자 중 동성애자만을 반대한다.”와 같

이 잘못 이해되거나, “모든 성소수자는 동성애자이다.” 혹은 “서울퀴어문화축제와 동성애 퀴어축제는 별개의 축제이다.”와 같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거룩한 방파제의 주장 중 ‘동성애’를 삭제하여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음란공연과 음란물을 전시하며 국민들에게 수치심과 혐오를 유발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둘째로는 이들의 주장 내에 사용된 ‘국민’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용어사전에 따르면, 국민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국적, 곧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법적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요건을 법률(국적법)로 규정하고 있다(국적법정주의). 또 국민은 위와 같이 개개의 인민만을 의미하지 않고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이라는 이념적통일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의 국민은 선거인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유력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sup>23)</sup>

이 정의에 따른다면 한국에서 개최되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들<sup>24)</sup>과 참가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나, 이들은 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에 대하여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다. 별도의 수식어 없이 “국민”이라는 명사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주관적 의견과 병기할 경우 모든 국민이 이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 아님에도 모든 국민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동일한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다는 오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별도의 설명 없이 단어의 원형을 명제 내에 사용하는 일은 읽는 이로 하여금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들의 주장 중 “국민”의 앞에 “거룩한 방파제의 회원들은, ‘일부 국민은”과 같은 설명을 제공하여 오해석의 여지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의 주장 중 “음란공연·음란물”의 정도를 정의하는 근거도 다소 부족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해 여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퀴어문화축제와 동일한 성격의 “워터밤(WATERBOMB)”<sup>25)</sup>이라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두 행사의 참가자들은 모두 수영복을 입거나, 상의를 탈의하거나, 맨살의 노출 정도가 높은 옷을 입고 노래에 맞추어 선정적인 춤을 추는 공통점이 있지만 거룩한 방파제 측은 워터밤의 음란공연과 음란물 전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는 음란공연과 음란물을 전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룩한 방파제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아 오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음란공연과 음란물을 전시하는 행사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방파제가 워터밤을 비롯한 모든 노출 관련 행사에 동일한 의견을 표출하거나, 주장 내에 “성소수자들의 음란공연과 음란물 전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문장을 추가하여 거룩한 방파제는 성소수자들의 음란공연과 음란물 전시에만 이의를 제기할 것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퀴어문화축제가 호기심 많은 청소년·청년들을 성소수자로 만들 수 있는가?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용어 사전,

<https://www.law.go.kr/lsTrmScListP.do?q=%EA%B5%AD%EB%AF%BC&outmax=15&fsort=10>

24)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부산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의 조직과 같이 한국 퀴어문화축제를 기획하고 행사 진행을 담당하는 비영리집단을 일컫는 용어이다.

25) 물총축제와 뮤직페스티벌의 성격이 결합된 행사로 한 회차는 약 540분간 진행되며 매해 여름 대한민국 각지에서 개최된다. K-pop, EDM, 힙합 공연 등이 추가되며 이 행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노출이 심한 수영복과 같은 의복을 입거나 상의를 탈의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성소수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성애자, 성전환자, 무성애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에 동성애자는 성소수자를 대표할 수 없고, 동성애 축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맥에 따라 “성소수자, 퀴어문화축제”로 치환하여 이해한다면 해당 주장은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노출 경험 여부에 따라 청소년·청년이 성소수자가 된 사례가 달라질 것을 추측하는 인과관계에 기반한 주장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주장이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인과관계 연구<sup>26)</sup>는 본디 연구자가 독립변인의 값을 조정하였을 때 종속변인의 증가·감소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변인 간 인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인과관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조건이 담보되어야 한다. 실험자가 독립변인을 조작하기 전 정확한 독립변인의 수준과 종속변인의 수준이 명확한 수치로서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실험자가 조작한 독립변인 외의 어떠한 요인도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담보하는 통제가 필요하다. 해당 주장에서의 요인들을 인과관계의 변인으로 치환하면 독립변인은 성소수자가 아닌 청소년과 청소년이 퀴어퍼레이드를 마주하는 것, 종속변인은 퀴어퍼레이드를 마주한 이후의 청소년과 청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성소수자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가 전무하기에 퀴어문화축제 이전·이후의 정확한 성소수자들의 인원수를 알 수 없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값을 구할 수 없다. 퀴어문화축제가 성소수자로 만드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을 교육 가능 여부로 이해하여 동성애의 전파 및 교육 가능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동일하다.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이하 APA) 입장에 따르면, APA는 성적지향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 과학자들 간 합의된 바는 없다고 밝히는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little or no sense of choice) 명시한다<sup>27)</sup>. 이는 성적 지향이 외부의 요인으로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선천적 선호이며, 바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주장은 인과관계를 위한 필수 선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퀴어문화축제의 여부가 청소년과 청년 성소수자 인구수 확산의 원인이라 확신할 수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소수자의 정체화 과정을 잘못 전파할 수 있는 해당 주장에 대한 수정을 권고한다.

### 3. 성소수자들이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 옳지 못한가?

거룩한 방파제의 본문 중 “동성애자들과 그 지지 세력들은 퀴어축제를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끌어낸 20여개 국가들의 지지와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압박함으로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라는 문장은 앞서 제시된 두 주장과 달리 옳고 그름의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주장이 아닌 명제에 가깝다 판단될 수 있으나, 본문 전체의 맥락을 이해한다면 비판적 관점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정치성을 비판하기 위해 제시되었기에 주장이라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당 주장의 경우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주장 내 “합법화” 사용이 적절하지 못하다. “합법화(合法化)”<sup>28)</sup>는 법령이나 규범에 맞도록 함을 의미하여 기존에 금지되거나 처벌의 대상이었던 것이 법에 법령이나 규범에 맞도록 하는

26) 한 가지 변인의 변화에 원인이 된 변인을 알아내는 실험 연구의 일환으로, 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강도 높은 연구방법론이다.

27)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Understanding sexual orientation and homosexuality], <https://www.apa.org/topics/lgbtq/orientation>

28) 법령이나 규범에 맞도록 함을 의미하는 명사

용례로 사용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동성결혼과 관련한 법령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불법(不法)과 비법(非法)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동성애, 성소수자의 결혼과 관련된 법령, 규범에 사용될 수 없는 형태의 용례이다. 동성결혼의 경우 기존에 있는 법령이나 규범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일이니, “법률로 정하여 놓는다, 법률로 정해지다.”와 같은 의미에서 기존에 없던 법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법제화(法制化)”<sup>29)</sup>로 대체하는 일이 적절하다. 둘째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1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정치적 행위를 할 자유가 있고, 제26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sup>30)</sup> 이들의 주장에서 국회를 압박하여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이끌어내려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행위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행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법령에 어긋나는 비판이므로 적절치 못한 비판이다. 따라서, 기존 주장을 “성소수자들과 그 지지 세력들은 서울퀴어문화축제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여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이끌어내려 하는데, 이들의 정치적 행보는 우리 단체가 따르는 신학적 관점에서 옳바르지 못하다.”와 같이 수정하여 정치적 행보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방향으로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다.

#### 4.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 사용조례에 역행하는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행사의 성격이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 공익적 집회 진행이어야 한다.’라는 서울광장 사용 조례 1조<sup>31)</sup>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서울퀴어문화축제는 공익적 집회나 건전한 문화활동에 부합하지 않으니,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서울광장 사용 조례)’에서 이들이 언급한 조례의 적절성과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례와 전문과 용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실제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이 제공하고 있는 서울광장의 사용 조례 제1조의 전문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거룩한 방파제 측의 주장과 비교하면 조례의 세부 내용 중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부분이 누락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광장 사용 조례 제1조의 전문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복합·문화·공개 행사를 추구하나, 사회적 소수자들의 가시화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의 성격을 가진 행사이기에 해당 조례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집회에 대한 적법한 신고를 마쳤다면, 이들이 광장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측에서 소명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서울퀴어문화축제 자체가 서울광장 사용 조례에 역행한다는 거룩한 방파제의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지만 실제 2023년과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행사 개최 거부를 통보받았으며<sup>32)</sup>, 해당 조례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에도

29) 법률로 정하여 놓음을 의미하는 명사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라인 누리집,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31) 서울특별시 내 서울광장의 사용에 관한 목적, 사용신고, 이용료 등을 명시한 행정 조례이다.

32) 2023년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에 대해 당시 행사의 결정을 담당하였던 시민위는 “그러나 퀴어문화축제를 ‘인권·평등’으로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국민 정서상 상당히 불편하다”며 “시민들은 서울광장이 깨끗하고 맑아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기를 바라는데 (퀴어문화축제처럼) 음성적인 문화를 축제라면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여론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위클리서울,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먼저 2023년 07월 1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사용신청 불승인 내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6개월) 동안 서울광장 사용이 불승인된 행사는 총 5개로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 문화제 2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반면, 2025년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된 유명 드라마 <오징어 게임> 팬 이벤트는 서울광장을 활용한 행사 진행이 가능했다. “서울광장 사용신고” 세칙 중 “일반시민의 자유롭고 쾌적한 광장이용을 제한하는 행사, 잔디 등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영리적 목적이 있는 행사, 특정집단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모임, 기타 광장 사용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행사의 사용을 제한한다”<sup>33)</sup>라 명시된 것과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다. 거룩한 방파제의 주장과 서울광장 사용조례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결과 제작물의 선정성·폭력성 수준이 높아 19세 미만의 관람을 제한하고 있고, 유료 OTT 서비스 내 제작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된 행사이니 서울광장을 활용한 홍보가 불가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행사는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고 거룩한 방파제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19세 미만 시청 금지인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인 행사는 개최되나, 합동분향소,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같은 행사의 개최는 거부되는 사례들의 누적되는 것을 토대로 짐작할 때, 서울특별시청의 서울광장 해당 사용 조례는 실제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거나, 모든 행사에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청의 서울광장 사용 조례에 대해 ‘사용 여부가 행사의 종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선택사항’, 혹은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개최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어 거룩한 방파제와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조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청은 한국 퀴어문화축제와 관련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가 모든 행사에 적용되는 공정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V. 결론

성소수자는 모든 시대·공간에 공존해온 우리의 동료 시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는 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 공간에서 드러내려 할 때 목살하거나, 조직적인 반대와 배제를 통해 수면 아래로 밀어넣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이들이 주류를 차지해왔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문제이다. 본 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거룩한 방파제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주장들이 지닌 논리적 문제점들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거룩한 방파제 측이 내세운 “퀴어문화축제가 국민에게 수치심과 혐오를 유발한다·청소년을 성소수자로 만들 수 있다·성소수자의 정치적 행동이 부적절하다·서울광장 사용조례를 위반한다.”라는 주장들은

<https://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72538>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축제조직위원장을 맡은 홀릭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행사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거나 혐오를 유발한다는 이유를 대며 대관을 거절했다"며 "서울시가 막아야 하는 것은 약자에게 일방적 폭력을 행하는 혐오세력이며 이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역시 혐오세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7066500004?input=1195m>

33) 서울광장 누리집 > 서울광장 > 사용안내, <https://plaza.seoul.go.kr/archives/247>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첫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보편적인 수치심과 혐오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특정 종교적·문화적 가치관을 모든 시민의 보편적 감정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이 축제를 통해 성소수자가 된다는 주장은 성적 지향과 정체성이 외부의 영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 셋째, 성소수자의 정치적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비판이다. 넷째, 서울광장 사용조례 위반한다는 주장은 모호한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오히려 축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공공질서를 해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글은 거룩한 방파제의 비판이 공익과 도덕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편향된 전제와 불충분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성소수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고 그들의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시도로 작용하고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은 다양한 목소리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특정 집단의 종교적 신념이나 문화적 선호가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숙한 사회의 공론장 형성을 위해 거룩한 방파제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관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을 넘어 모든 시민이 자유로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공적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저자명 가나다순/abc순)

- Conron, K.J., Goldberg, S.K., “Adult LGBT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Williams Institute, 2020
- Graham, R., Berkowitz, B., Blum, R., Bockting, W., Bradford, J., and de Vries, B., “The health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Building a foundation for better understanding”, National Academies Press, 2011
- 강병철·하경희, 「청소년 성소수자의 긍정적 성적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012.
- 강혜경·어성연, 「성인기 초기 남성 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성 인지와 커밍아웃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 no 3, 2019.
- 심지영, 「지역별 퀴어문화축제의 거버넌스 구조 및 유형 연구」,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5, no 3, 2022.
- 이호림, 이해민, 주승섭, 김란영, 엄윤정, 김승섭. (2022). 국가 대표성 있는 설문 조사에서의 성소수자 정체성 측정 필요성 : 국내외 현황 검토와 측정 문항 제안. 비판사회정책,(74), 175-208. 10.47042/ACSW.2022.2.74.175
- 정현영,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 허성원, 「정치를 새롭게 읽어내는 퀴어정동정치: 한국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사회학회』, 문화와 사회 27, no 3, 2019.

## 인터넷 참고자료

- 김정진, [퀴어축제, 올해도 서울광장 못쓰고 종각~을지로 일대 행진], 연합뉴스, (2024.05.07.게시, 2025.11.03. 열람)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7066500004?input=1195m>
- 박영신, [서울시,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성소수자 차별 방조 '논란'], 위클리서울, (2023.05.26.게시, 2025.11.03.열람),  
<https://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72538>
- 유선희, 최유진, [“사랑은 사랑이야”...대만 타이베이 퀴어퍼레이드 가보니], 경향신문, (2023.11.04.게시, 2025.11.04. 열람)  
<https://www.khan.co.kr/article/202311011502001>
- 변지철, [퀴어문화축제 제주서도 ‘충돌’...인천 이어 갈등 반복 (종합)], 연합뉴스, (2018.09.29.게시, 2025.11.03.열람)  
<https://www.yna.co.kr/view/AKR20180929028151056?input=1195m>
- 나수진, [이렇게 ‘클린’할 수 있다니...혐오 없고 평화로운 퀴어퍼레이드가 낫설었던 한국인들], 뉴스앤조이, (2024.11.11.게시, 2025.10.28.열람),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68>
- 수현, [동성혼 찬성 71%의 국가, 도쿄프라이드는 서울과 무엇이 다를까?], 여성신문, (2025.06.19.게시, 2025.10.24.열람),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734>

김정화, [법원 “대구시, 퀴어축제에 700만원 배상하라”…홍준표 제외], 뉴시스,  
(2025.02.19.게시, 2025.10.14.열람),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9\\_0003071045](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9_0003071045)

구권효, [[퀴어 문화 축제 방해 잔혹사] ㉠ 교회의 첫인상이 '혐오'였다], 뉴스앤조이,  
(2023.06.30.게시, 2025.10.16.열람),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68>

김무진, [대구퀴어문화축제 반대 단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경북도민일보,  
(2025.09.07.게시, 2025.10.20.열람),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91721>

조재한, [[심층] ‘퀴어축제’ 두고 2년 전 대구에서 벌어진 경찰-대구시 충돌…대법원도 결국  
“대구시 배상하라”], 대구MBC, (2025.06.21. 게시,  
2025.10.20.열람),[https://dgmbc.com/article/n7wF\\_kupZl](https://dgmbc.com/article/n7wF_kupZl)

조연주,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방해·폭행 ‘줄중이 벌금형’], 인천투데이, (2020.06.23.게시,  
2025.10.20.열람),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501>

장예지, [“무지개는 자연현상” 베를린 퀴어축제, 자부심을 채우다], 한겨레, (2024.07.30.게시,  
2025.10.20.열람),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51005.html>

우야, [반대하는 세력 없는 일본 성소수자 축제!], 일다, (2015.05.11.게시, 2025.10.28.열람)  
[https://www.ildaro.com/sub\\_read.html?uid=7084&section=sc5](https://www.ildaro.com/sub_read.html?uid=7084&section=sc5)

송경호, [“서구 무너뜨린 성혁명 파도, 거룩한 방파제로 막아내야”], 크리스천투데이,  
(2025.05.07.게시, 2025.10.28.열람)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8152>

이승한, [무지개빛 길벗체로 세상에 사랑을 새깁시다], 오마이뉴스, (2020.08.23.게시,  
2025.10.28.열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931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931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유수연, [“대기업도 참여, 혐오 없네요”…도쿄 퀴어퍼레이드 본 韓] 성소수자들 ‘쏟쓸’], 뉴스1,  
(2025.06.13.게시, 2025.10.26.열람)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812369>

권진영, [성소수자들 14일 서울 도심 행진…혐오발언·아우팅도 대비], 뉴스1,  
(2025.06.09.게시, 2025.10.25.열람)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80706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뉴스 [스톤월 항쟁 50년: 자긍심과 시위, 그리고 평등을 향한  
갈망]<https://amnesty.or.kr/29448/news/%EC%8A%A4%ED%86%A4%EC%9B%94-%ED%95%AD%EC%9F%81-50%EB%85%84-%EC%9E%90%EA%B8%8D%EC%8B%AC%EA%B3%BC-%EC%8B%9C%EC%9C%84-%EA%B7%B8%EB%A6%AC%EA%B3%A0-%ED%8F%89%EB%93%B1%EC%9D%84-%ED%96%A5%ED%95%9C/>

하성태, [안철수 “퀴어축제 도심 밖에서” 발언 일파만파.. 팩트체크 ‘꽤도’], Go발뉴스,  
(2021.02.20.게시, 2025.10.26.열람)

<https://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15>  
신준희, [기독교단체, 퀴어축제 광장 사용승인 서울시 규탄], 연합뉴스, (2022.06.21.게시, 2025.10.26.열람)

<https://www.yna.co.kr/view/PYH20220621163700013?input=1196m>  
(주)아카이브랩의 공익 사업 공공 아카이브 퀴어락

<https://queerarchive.org/simple-pages/page/introduce>  
구권효, [[퀴어 문화 축제 방해 잔혹사] ③ 도 넘은 방해로 처벌받은 개신교인들], 뉴스앤조이, (2023.06.27.게시, 2025.10.27.열람),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48>  
허은선, [한국에서 제3의 성은?], 시사IN, (2013.09.04.게시, 2025.10.25.열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09>  
손민지, [LGBTAIQ, 성소수자도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덕성여대신문, (2014.06.10.게재, 2025.10.25.열람) <https://www.dspress.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9>

나수진, [퀴어 문화 축제 방해 잔혹사] ② 혐오 세력 방조하는 지자체.], 뉴스앤조이, (2023.06.26.게시, 2025.10.26.열람)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41>  
신준희, [기독교단체, 퀴어축제 광장 사용승인 서울시 규탄.], 연합뉴스, (2022.06.21. 게시 2025.10.26. 열람)

<https://www.yna.co.kr/view/PYH20220621163700013?input=1196m>  
김효실, ["울컥합니다"...혐오 세력도 꺼안은, 흥겨운 무지개 행진], 한겨레, (2025.06.15.게시, 2025.10.26.열람),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202803.html>

정성화, [시민단체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절대 안돼!”] 뉴데일리, (2016.03.24.게시, 2025.10.24.열람)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6/03/24/2016032400136.html>  
김영화, 정준민, [성소수자들의 단 하루, 대구퀴어축제...무사히 광장에서 열려] 평화뉴스, (2023.06.17.게시, 2025.10.23. 열람),

<https://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6>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누리집 <https://www.sqcf.org/sqcf>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https://loveisplus.co.kr/1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 - Understanding sexual orientation and homosexuality - What causes a person to have a particular sexual orientation, 2008, <https://www.apa.org/topics/lgbtq/orientation>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공식 누리집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84%B1%EC%86%8C%EC%88%98%EC%9E%9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